

회원조합의 신용·경제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한농연 “협동조합 개혁 점검표” 분석 결과 보고 -

“협동조합 개혁 점검표” 작업의 의의 및 성과

근본적인 농협 개혁을 완수하여 농업·농촌 회생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400만 농민들의 힘찬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다. 7월 8일 서울 충정로의 농협중앙회 및 전국 각 지에서는 {농협 개혁과 한-칠레 FTA 비준 반대를 위한 농민결의대회}가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400만 농민들은 3년 이내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완료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조합장 중에서 농협 시도지역본부장 선출제 실시 등의 3개 핵심과제를 요구하였다.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의 희생 위에서 군림하며 비효율적인 임직원 위주의 조직으로 전락한 농협중앙회의 개혁이야말로, 근본적인 농협 개혁을 앞당기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근본적 개혁과 더불어 회원조합의 운동성 및 사업성을 강화하는 일도 매우 시급하다.

경제·신용·지도사업 등 농민조합원들이 매일 접하는 농협의 최일선 창구는 바로 회원조합(혹은 지소) 및 그 임직원들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농협 개혁을 한시라도 앞당기기 위해 회원조합의 개혁을 위한 각종 작업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농민조합원이 주인이 되어 회원조합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농협중앙회의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타파하여 조합원 실익 사업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하는 등 진정한 농민중심적 농협 개혁의 과제를 조기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농연은 전국 시도 및 시군·읍면동 조직을 총가동하여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점검표” 작업을 지난 5월 4일부터 6월말까지 진행하였다(표 1 참조). 한농연 각급 조직의 임원들은 모내기과 각종 작물의 파종 등의 영농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총 429개(설문 분석에 유효하게 사용가능한 응답지만 집계)의 응답지를 중앙연합회에 제출하는 끈끈한 조직력을 과시했다.

특히, 이번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점검표” 작업은 각 시군연합회와 도 연합회는 주도적으로 설

문지의 회수 및 전산 입력 작업을 수행하여 중앙연합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한농연은 각 지역 연합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 활동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 표 1 : 한농연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점검표” 작업 개요

1. 기 간 : 2003. 5. 4 ~ 2003. 6. 30
2. 대 상 : 각 시군연합회장 및 읍면동회장
3. 조사방법 : ① 중앙연합회에서 우편으로 점검표를 시군·읍면동회장 자택에 발송
 ② 시군연합회 및 도 연합회에서 점검표를 회수하여 전산 입력
 ③ 전산 입력 결과를 중앙연합회에서 취합·분석하여 결과 도출

신용사업 평가 결과 - 높은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신용사업구조 여전

한농연 회원들의 조사 결과 회원조합들의 평균 정기예금금리는 5.1%, 신용대출금리는 9.5% 일반담보대출금리는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평균 예대마진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1년 지역농협 상호금융 평균 예대마진 5.46%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회원조합들의 신용사업이 아직도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에 의존한 예대마진 이익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 표 2 : 회원조합 상호금융 예금·대출금리 분석 결과

정기예금금리	신용대출금리	일반담보대출금리	예대마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5.1%	9.5%	8.4%	5.2%

물론, 노령 영세조합원이 다수인 농촌지역 지역농협 등의 경우 높은 예금금리를 보장해 주면서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모순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또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사업수수로 중심의 경영형태가 정착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선부른 예대마진 인하 방침은 오히려 조합의 부실경영을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농업금융의 특수성과 농민조합원들의 심각한 농가부채 문제 등을 감안한 회원조합들의 점진적인 예대마진 인하 노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금융과 상호금융의 연체금리 등

농민조합원의 경제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각종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회원조합들은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회원조합들의 신용사업 성과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대마진 및 금리 결정 등에 대한 논의는 금리조정위원회와 이사회

● 표 3 : 회원조합의 대출 관행 관련 분석 결과

구 분	대출시 '꺾기' 관행 존속 여부	연체금 등 무리한 채권회수 강요
① 그렇다	27	56
② 그런 편	47	55
③ 그저 그렇다	69	95
④ 그렇지 않은 편	60	120
⑤ 그렇지 않다	207	94
평 점	3.91	3.34

(평점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평가를 평균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조합원들의 평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함)

등을 통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과거 조합원들의 주요 민원대상이었던 “꺾기 관행”(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지 않거나 예금 혹은 공제 등의 가입 강요)이나 무리한 연체금 회수 시도 등이 해소되어가는 것으로 응답하여 고무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도금융 관련 설문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원리금 상환 총액 및 상환일정 통보와 같은 기초

● 표 4 : 회원조합의 지도금융 관련 분석 결과

구분	원리금 상환 총액 및 상환일정 정보 제공	조합원에게 유리한 상환조건 공동 모색	조합원 농업소득 및 상환일정 감안한 자금 및 정보제공	농가부채 관련 민원사항 해결 노력
①	240	143	73	94
②	97	110	92	104
③	57	97	112	133
④	18	43	87	49
⑤	14	33	61	42
평점	1.75	2.33	2.93	2.62

(비고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은 편 ⑤ 그렇지 않다)

(평점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평가를 평균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숫자가 낮을수록 조합원들의 평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함)

적 정보제공 서비스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기초적인 지도금융 서비스 및 부채 관련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어서 회원조합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경제사업 평가 결과 - 농축산물 가공, 유통, 판매사업의 혁신 필요성 제기

경제사업에 관련된 점검사항은 크게 생활물자 구·판매사업 농업자재 구매사업 농축산물 판매사업 작목반 지원현황 농축산물 가공·유통사업 등으로 구분·조사하였다. 점검표 분석을 통해 응답자들은 농축산물 판매와 가공·유통사업,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작목반 등 기초생산자조직 운영 활성화 등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원조합들이 최우선적으로 신경써서 육성해 나가야 할 사업임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우선 회원조합의 농축산물 판매사업 핵심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조합장 및 일선판매직원을 제일 많이 지목했다. 즉 조합장의 리더쉽과 현실적이며 일관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일선판매직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농축산물 판매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아울러 경제사업 활성화를 염원하는 농민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농축산물 판매사업의 핵심 주체가 “없다”는 응답이 무려 40개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회원조합들의 분발 및 각성이 요구된다.

● 표 5 : 회원조합 농축산물 판매사업 핵심 주체 관련 분석 결과

구분	①조합장	②임원	③고위직원	④일선판매직원	⑤작목반장	⑥조합원	⑦없다	⑧기타
응답자(명)	134	12	28	129	43	24	40	5

또한 경제사업 전담직원 배치·운용 및 전문성·사업효율성 강화 등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은 매우 컸다. 회원조합 내 경제사업 전담직원이 채용되어 배치·운용되는 조합은 그렇지 않는 조합의 2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들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부여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표 6).

또한 경제사업 담당 직원의 유통분야 전문성이나 업무 효율성, 교육·훈련 등에 대한 응답 결과 모두 “③ 그저 그렇다”에 가까운 3점 근처의 평점이 도출되었다(표 7). 이를 통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업무 효율화·전문화 달성이 매우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표 6 : 회원조합 경제사업 전담직원 관련 분석 결과

구 분	경제사업 전담직원 배치·운용 여부	경제사업 전담직원 인센티브 부여 여부
① 그렇다	288	115
② 아니다	117	245

● 표 7 : 회원조합 경제사업 관련 점검사항에 관련 분석 결과

구 분	직원들의 농축산물 유통분야 전문성	농축산물 판매 업무 효율적 운영 여부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훈련 여부
① 그렇다	46	76	64
② 그런 편	126	119	108
③ 그저 그렇다	116	127	123
④ 그렇지 않은 편	72	44	66
⑤ 그렇지 않다	49	37	36
평 점	2.88	2.61	2.75

(평점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평가를 평균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숫자가 낮을수록 조합원들의 평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함)

작목반 운영 및 지원활동에 관한 설문 분석 결과, 공동생산·선별·출하를 통한 공동계산제 실시를 적극 추진하여 농축산물 판매가격을 높이려는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들의 협력이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회원조합들의 상당수는 품목별 대표를 조합 이사 자격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있

● 표 8 : 작목반 지원 및 공동출하 관련 분석 결과

구 분	작목반에 대한 조합의 지원 여부	공동생산·선별·출하·계산 이후 농가 판매가격 상승 여부
① 그렇다	93	52
② 그런 편	120	86
③ 그저 그렇다	130	107
④ 그렇지 않은 편	50	36
⑤ 그렇지 않다	26	40
평 점	2.51	2.73

(평점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평가를 평균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숫자가 낮을수록 조합원들의 평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함)

● 표 9 : 조합원 공동출하 및 품목별 대표 이사 참여 관련 분석 결과

구 분	공동생산 · 선별 출하 여부	품목별 대표, 회원조합 이사 자격 참여 여부
① 그렇다	228	80
② 아니다	183	321

어, 산지 유통활성화를 통한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강화를 위해 이의 개선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농축산물 가공 · 유통 시설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 실익 증진에 직접 연관된 중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이들 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높지 않으며 농축산물의 판매 증진이나 농업소득 증대와의 상관성에 대해 “③ 그저 그렇다”로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들 질문에 대한 평점 또한 5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3점 인근에 집중 분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가공 · 유통시설 및 관련사업에 대한 농민조합원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어서, 가공 · 유통사업에 대한 회원조합들의 농민중심적인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 **한농연**

● 표 10 : 회원조합의 가공 · 유통시설 관련 분석 결과

구 분	가공 · 유통시설의 활용 여부	농축산물 판매에의 도움 여부	농업소득 증대への 도움 여부
① 그렇다	65	82	39
② 그런 편	100	95	66
③ 그저 그렇다	107	102	142
④ 그렇지 않은 편	60	48	60
⑤ 그렇지 않다	57	54	70
평 점	2.83	2.69	3.11

(평점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평가를 평균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숫자가 낮을수록 조합원들의 평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함)